

용대리 황태를 지역브랜드로 육성하기까지



한림대학교 교수
kwlee@hallym.ac.kr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는 편현상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봄에는 건조, 단열, 압축의 바람이 형성되는 곳이다. 사람 살기에는 척박한 기후조건이 명태를 말리는 데 있어서는 최상의 기후조건이 된다. 이러한 기후조건을 갖춘 곳이 국내에 별로 없다는데서 용대리 황태의 지역성이 두드러진다.

용대리의 황태는 2003년 1700만 마리를 생산하였던 것이 2011년에는 3000만 마리로 늘어나서 전국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한다. 그 나머지를 대관령 서쪽 경사면에 위치한 황계리 일대에서 생산하므로 사실상 국산 황태는 용대리에서 생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황계리에 덕장이 생긴 것은 용대리에 덕장이 생긴 것보다 10여 년이 지나서이다.

명태를 말린 것에는 북어도 있고, 황태도 있다. 그 차이는 맛뿐 아니라 함유된 영양성분에서도 두드러지는데, 그 조건이 바로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의 반복 여부이다. 즉, 기후조건이 가장 큰 요인인데 강원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연구 결과, 중국산의 경우 대체로 한번 얼어붙은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날씨가 풀리면서 그냥 녹기 때문에 용대리 황태와 같은 감칠맛이 나지 않고, 기능성 성분 또한 충분히 들어 있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중국산이나 용대리산이나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실제 원료가 되는 명태를 잡아온 러시아 어장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북어인 중국산 황태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게 된 것도 이러한 차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차이가 워낙 두드러지다 보니 생긴 일이다. 용대리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1960년대 덕장을 처음 만들 무렵에 ‘황태’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황태를 지역의



인제용대황태 공동브랜드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나서 상표로 등록하려니까 이미 보통 명사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응답을 받고 브랜드 관

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중국산 북어가 황태로 둔갑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것이 이러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특성을 담은 브랜드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업체 전체가 공유하게 되었다.

용대리 황태를 브랜드로 키우는 데 있어 가장 강점이 되는 것은 건조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리적 원산지 표시를 추진하였다. 신활력사업 기간인 2005~2010년 내내 추진하였으나 담당부처가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오랜 기간 지체되더니 원료인 명태가 러시아 어장에서 잡힌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농산물의 지리적 원산지 표시와 성격이 다른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도를 만들 때 보다 깊이 고민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안으로 말미암아 당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용대리를 방문하여 덕장을 둘러보고 황태생산자연협회 임원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식품부와 지역 주민 소통의 장이 열리고, 상표권을 중심으로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등록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2010년 7월 15일 “인제용대황태”라는 상표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으로 등록되어 10년간 배타적 사



캐릭터 개발(상표 등록 완료)

용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은 인제군 용대리 전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등록 권리자는 용대리 황태업체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사)인제용대황태연합회이다. 즉, 뭉치기 힘든 황태업체들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계기로 조직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업체 조직화는 농식품부 지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하였다. 즉, 개별 업체의 이해관계보다는 용대리 황태산업 전체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중지를 모으는 데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계기로 업체들의 단결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사)인제용대황태연합회는 동판제작에서 포장재 생산과 보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고 업체의 품질관리에도 여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용대황태의 우수성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인제용대황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에서 수입하는 마른 명태에 대해서도 생산이력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수입산 마른 명태로 인하여 인제용대황태에 대한 인식도 나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던 것처럼 인제용대황태연합회 이강열 대표와 임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충분히 불식할 것이다. 🌈